

한국 여성권한척도 순위

연도	여성권한 척도 순위	여성의원 비율 (%)	여성 행정 관리직 비율 (%)	여성 전문기술직 비율 (%)	남녀 소득비율 (%)
1999년	78위/102개국	3.7	4.2	45.0	-
2000년	63위/70개국	4.0	4.7	31.9	-
2001년	61위/64개국	5.9	5	31	45

(자료: 유엔개발계획 발간 2001 인간개발보고서)

한국 女權척도 64國中 61위

고위행정직 진출 거의 없어

남녀평등은 146개국중 29위

UNDP 인간개발보고서

우리나라 여성들은 교육 수준은 남성과 비슷하지만 사회 각 부문의 고위직에 진출해 이를 활용하는 비율은 낮다고 유엔개발계획(UNDP)이 15일 발표한 '2001년 인간개발보고서'가 지적했다.

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문자해독률, 취학률, 평균수명 등을 비교한 남녀평등지수(GDI)는 한국이 146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. 이는 지난해보다 1단계 올라선 것.

반면 여성 국회의원 수, 고위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의 여

성 비율, 남녀소득차, 정책과정 참여도를 고려해 산출한 여성권한척도(GEM)는 64개국 중 61위로 바닥권이었다. 이는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31위, 싱가포르 35위, 말레이시아 38위, 필리핀 46위보다 낮은 수치다.

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5.9%였으며 노르웨이 36.4%, 네덜란드 32.9%, 미국 13.8%, 일본 10.8%였다.

고위직 여성 비율도 한국은 5%에 불과해 미국(45%) 영국(33%) 노르웨이(31%) 일본(9%)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.

한편 교육 수준, 국민소득, 평균수명 등을 근거로 산출한 인간개발지수(HDI)는 162개국 중 27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했다.

〈서영아기자〉

sya@donga.com